

# 흡연 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연관성 분석: Ego gram의 조절효과

김한결<sup>1</sup>, 변지은<sup>2</sup>, 김규민<sup>2</sup>, 이현실<sup>3\*</sup>

<sup>1</sup>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BK21Plus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연구교수,  
<sup>2</sup>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PLUS 인간생명-상호작용 융복합사업단 대학원생,  
<sup>3</sup>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ed Effect of Ego gram

Han-Kyoul KIM<sup>1</sup>, Jieun Byeon<sup>2</sup>, Kyu-min Kim<sup>2</sup>, Hyunsill Rhee<sup>3\*</sup>

<sup>1</sup>Research Professor, BK21Plus Program in Embodiment : Health-Society Interacti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up>2</sup>Graduate student, BK21Plus Program in Public Health Science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sup>3</sup>Professor, School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College of Public Health Sciences,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여부에 따라 대학생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있어 개인의 자아상태의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상태의 조절효과는 흡연군과 비흡연군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비흡연군에서는 자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추구하는 CP 성향이 우울을 낮추는 조절효과를 보였고, 흡연군에서는 뛰어난 적응성과 창조력, 자율성이 풍부한 A 성향이 우울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흡연군에서는 AC 성향도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는데, AC 성향이 높은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현실에 순응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자아상태의 조절효과는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정서적 상태에의 접근에 있어 개인이 지닌 성향을 함께 고려하여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대학생, 인지된 스트레스, 우울감, ego gram, 자아상태, 교류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oderate effect of Ego gram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from university student according to smokers/non-smokers. The result of study shows the strong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On the other hand, the moderated effect of Ego gram was different in the smoking and non-smoking groups. In the non-smoker group, the CP tendency which is pursued strictly control by oneself had a moderating effect on depression, and in the smoker group, the A tendency, which had excellent adaptability, creativity, and autonomy, reduced depression. On the other hand, in the smoking group, the AC tendency also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t is reported that a high AC tendency may cause a feeling of helplessness about the situation and cause negative emotions to conform to reality. This suggests that the individual's ego state to approach emotional state such as stress and de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Key Words : Perceived stress, Depression, Ego gram, ego state, transactional analysis

\*본 논문은 2018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special research grant of the Kore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ealth Science.)

\*Corresponding Author : Hyunsill Rhee(pridehyun@korea.ac.kr)

Received November 15, 2019

Revised December 24,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 1. 서론

오늘날 현대인은 급속한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자극과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1]. 대학생들의 발달과업은 자아정체성의 확립,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정신적 독립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 등 다양하다 [2]. 또한, 미성숙한 성인의 단계로서 대학생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인과는 구별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하면서 성숙한 성인으로서 발달해가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는 시기라 하였다 [3-4].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중, 고등시절의 청소년기에 서열 중심 체계 안에서 과도한 입시경쟁 안에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 이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 [5].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대학생은 개인적 및 가족의 성공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는 집단이며 [6],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대, 생활고 및 취업난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7].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개인 및 가정의 차원에 국한되어 있지않고, 사회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에 해당하는 만 19-29세 청년의 32.8%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30-39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해서 방치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을 초래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좌절과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우울을 유발한다 [8,9]. 박재연 외[10]에 따르면, 대학생은 학업 및 취업, 경제 및 가치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우울 및 자살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은 중, 고등학생보다 더 심한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1], 이는 중, 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12],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개인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된다 [13]. 이처럼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우울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한편, 대학생 시기는 강한 호기심과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시기로, 자신의 성장 또는 사회적 관심의 이유로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며 건강에 해로운 음주, 흡연을 시도하기도 한다 [14]. 우

리나라 대학 문화는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 부족 등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흡연을 선택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15,16] 과도한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소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다 [16]. 그러나 이런 흡연은 스트레스를 일시적 해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비흡연에 비해 정신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한편, 스트레스와 우울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형 및 내형적 자기에, 사회 및 자율 지향성의 성격유형, 완벽주의 성향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개인의 성격 특성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다르게 하게 된다. 개인의 성격 특성과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볼 때, 국제교류분석학회에서 제시하는 상호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호교류 분석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 치료법이며 성격 이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8]. 한편, 상호교류 분석을 고안한 berne은 마음의 구조를 기능적으로 CP (Critical Parent), NP (Nurturing Parent), A (Adult), FC (Free Child) AC (Adapted Child)로 구분되며 [20,21], 개인의 자아 상태를 도표로 나타내는 자아 상태 유형인 Ego-gram을 고안했다 [19]. 자아 상태에 대한 정의에서 '일관된 행동 유형에 상응하여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감정과 경험의 일관적인 형태로서, 일정한 시기나 상황에서 성격의 한 부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어 상호교류 분석의 성격 이론인 자아 상태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20].

이처럼 개인의 성향은 스트레스나 우울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격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아 상태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성장기인 대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접근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성인으로서 발달해가는 과정에 놓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있어 자아 상태 (Ego-gram)의 조절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자료원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인 인지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연관성에서 자아상태 (Ego-gram)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현재 재학 및 휴학 중인 20대 대학생이다. 20대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은 발달단계 상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집단이며, 청소년기에서 대학생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임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현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펙 및 취업 등 미래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선정·배제 기준과 표집 설계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첫째, 본 연구의 목표 표집단은 1개 도시의 대학생으로 표본의 대표성 및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시의 권역을 4개로 분할하여, 각 권역별로 2-3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또한 표본 크기는 분석방법, 변수의 수, 유의수준 등에 따라 최소 표본크기를 산출해주는 G\*power를 활용하여 240명이 적정 표본임 (actual power=0.90, effect size=0.15)을 산출했다. 하지만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전체 문항 수의 5-10배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15]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00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현재 재학 및 휴학 중인 대학생이며, 설문 조사자가 포함된 대학의 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학기인 자와 졸업 전이지만 취업이 확정된 자는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09~2019년 1월까지 총 5개월 간 조사되었으며, 결측치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422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 2.2 변수설명

### 2.2.1 종속변수: 우울

우울척도는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연구원 (NIHM)에서 개발한 '역학연구-우울척도'인 CES-D를 사용하였다. 최초 CES-D의 문항은 60문항으로 다양한 개념을 수집하고자 하는 설문 문항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aton [21]이 10개 항목으로 축소한 개정 버전을 사용하였다. 우울문항의 경우 응답자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부문항 (5, 8번 문항)을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당 0~3점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또한, 우울 점수는 각 문항의 총합으로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 개정된 CES-D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각각 0.86, 0.91로 기존 설문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해치지 않으며, 우울 상태를 적절히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0.807, 0.834로 우울의 개념을 적절히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2 독립변수: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Cohen 외[22]가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erceived Stress Scale-10)를 연구자들이 번안한 것을 사용한 봉원영 외[2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각 문항의 스트레스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조사한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없었다)에서 5점 (매우 자주 있었다)의 Likert-5 scale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일부 문항 (4, 5, 7, 8번)의 경우 역채점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점수는 문항의 총합으로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신뢰도와 타당도 각각 0.82, 0.82로 기존의 설문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도 각각 0.725, 0.816로 나타나 지각된 스트레스의 개념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3 조절변수: Ego gram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자아분석에 초점을 둔 Ego gram 변수를 설문 문항에 추가했다. Ego gram은 Eric Berne에 의해 1972년 고안된 정신건강 지표로 총 50문항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go gram은 각 구성요소인 비판적 아버지 (Critical Parent, CP), 양육적 아버지 (Nurturing Parent, NP), 어른자아 (Adult, A), 자유로운 어린이 (Free Child, FC)와 순응한 어린이 (Adapted Child, AC)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그래프로 성격의 유형을 판단한다. Ego gram 관련 설문은 60개 문항에 대해 1 (매우부정)에서 5 (매우긍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각 ego-gram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각 자아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 2.2.4 통제변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Ego-gram 조절 효과에 대한 타당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하여 성별, 학년, 재학 연수를 통제하였다. 위의 통제 변수들은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이다. 연구대상의 나이는 일반적인 성인 대학생의 졸업나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즉, 남성의 경우 군대를 제대한 후 졸업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24세에 4학년에 재학 상태이며, 이 연령을 넘을 경우 휴학 등의 이유로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보편적인 입학과 졸업 기준의 대학생과 기타 이유로 인해 졸업이 늦춰진 대학생을 구별할 수 있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더미 변환하였다. 학년은 4년제 대학 정규학기인 1학년부터 4학년과 초과 학기를 들을 경우인 5학년으로 구성하였다. 재학 연수는 휴학 기간을 제외하고 소속 대학교에 적을 두고 교육을 받은 기간으로 연속형 변수이다.

### 2.2.5 집단변수

이 연구의 집단 변수는 흡연 여부이다. 흡연 여부는 Fagerstrom (1991)의 니코틴 의존도 검사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 개발 당시 맥박, 체온, 니코틴의 일차대사 물질인 코티닌 수준과도 높은 상관을 보여 그 타당도가 증명되었다. 또한, 니코틴 의존도 검사의 총 점수가 0점일 경우 '비흡연', 1점 이상일 경우 '흡연'으로 정의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agerstrom의 니코틴 의존도 점수에 따라 비흡연과 흡연 집단을 구분하였다.

## 2.3 분석방법

### 2.3.1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프로그램인 STATA와 SPSS 25.0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Ego-gram이 어떠한 조절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분석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얼마나, 어떻게 주는지 알아보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위해 Baron and Kenny [24]의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와 조절효과의 상호작용항의 구성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이

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Step1} : Y &= \beta_{10} + \beta_{11}X + \beta_{12}Mo + \epsilon_1 \\ \text{Step2} : Y &= \beta_{20} + \beta_{21}X + \beta_{22}Mo + \beta_{22}XMo + \epsilon_1 \end{aligned}$$

Step 2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인  $\beta_{23}$ 가 유의할 경우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또한 Interaction의 유의성이 존재한 Step 2에서 조절변수의 유의성 여부에 따라 순수조절효과와 유사조절효과로 구분된다.  $\beta_{2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조절변수를 유사조절(Quasi moderator)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며,  $\beta_{2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는 순수조절(Pure moderator)효과가 있다고 정의한다 [25]. 한편, 본 연구는 전체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Ego-gram의 조절 효과의 검증과 함께, 흡연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했다.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연구 참여자의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에 의무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얻어 진행했다 (IRB-2018-0052).

## 3. 연구결과

###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참고). 대상자 전체 422명의 연령분포는 18-24세가 359명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5-31세가 63명으로 14.9%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의 분포는 남성이 61.6%이고 여성은 38.4%로 나타났고, 학년은 4학년이 23.9%로 가장 많았으며, 5학년 22.7%, 3학년 22.0%, 2학년 20.9%, 1학년 10.4%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 여부에서는 비흡연군은 62.3%이고 흡연군은 37.7%로 나타났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istics		N(%)
age	18-24	359(85.1)
	25-31	63(14.9)
sex	Male	260(61.6)
	Female	162(38.4)

study year	1	44(10.4)
	2	88(20.9)
	3	93(22.0)
	4	101(23.9)
	5	96(22.7)
smoking	non-smoker	263(62.3)
	smoker	159(37.7)

### 3.2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및 우울, Ego gram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 상태, 스트레스 및 우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참고). 분석결과 5가지 자아 상태 중 CP 성향 (m=25.80)이 가장 높았으며, FC 성향 (24.02), A 성향 (23.20)이 평균 20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성별에 따른 자아 상태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A 성향에서만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에서 A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에 따른 자아 상태를 살펴본 결과, 고연령 대학생 집단에서 NP와 AC 성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P 성향에서는 저연령 대학생 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년분포에 따른 자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NP, CP와 AC

성향에서 학년 간에 성향점수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P 성향에서는 5학년 집단이 2, 3, 4학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NP 성향을 보였으며, CP 성향의 경우 1학년 집단이 5학년 집단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AC 성향의 경우 5학년 집단이 3학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스트레스와 우울의 평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 모두 여성의 경우에 높았으나, 스트레스 점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연령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우울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5학년 집단과 2학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3 흡연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연관성 및 Ego gram의 조절효과

흡연 여부에 따라 비흡연 집단과 흡연 집단으로 구분하여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섯 가지의 자아 상태 (ego-gram)를 개별적으로 조절 효과 검증을 하였다. 비흡연 집단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및 자아 상태의 조절 효과를

Table 2. Difference of Stress, Depression and Ego gra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Stress		Depression		CP		NP		A		FC		AC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Sex	Male	16.08 (5.81)	-3.478 (p<0.01)	8.95 (4.49)	-.817	25.72 (6.36)	-.331	15.61 (7.08)	1.776	23.94 (5.60)	3.472 (p<0.01)	24.13 (5.39)	.485	17.27 (7.04)	-.363
	Female	18.06 (5.47)		9.31 (4.54)		25.93 (6.22)		14.40 (6.37)		22.02 (5.35)		23.85 (6.09)		17.52 (6.54)	
Age	18-24	16.84 (5.77)	-.068	8.95 (4.47)	-1.502	26.11 (6.41)	2.390 (p<0.05)	14.30 (6.39)	-6.335 (p<0.001)	23.27 (5.69)	.583	24.04 (5.71)	.129	16.94 (6.72)	-3.042 (p<0.05)
	25-31	16.89 (5.71)		9.87 (4.66)		24.06 (5.38)		19.95 (7.27)		22.83 (4.95)		23.94 (5.47)		19.76 (7.14)	
Edu	1	17.05 (5.23)	2.369	8.75 (3.94)	3.244 (p<0.05) (5>2)	27.84 (5.35)	2.842 (p<0.05) (1>5)	14.59 (5.94)	6.138 (p<0.001) (5>2, 5>3, 5>4)	23.00 (5.43)	.878	24.80 (6.38)	.501	17.18 (6.18)	2.881 (p<0.05) (5>3)
	2	17.14 (6.67)		8.34 (4.61)		26.01 (6.82)		14.45 (6.74)		23.32 (5.97)		23.78 (4.80)		16.82 (6.21)	
	3	16.12 (6.01)		9.20 (4.39)		25.05 (6.20)		13.61 (6.11)		23.39 (5.75)		24.45 (5.39)		16.10 (7.83)	
	4	15.92 (5.31)		8.51 (4.33)		26.58 (6.23)		14.67 (7.08)		23.81 (5.33)		23.84 (5.46)		17.27 (6.79)	
	5	18.16 (5.08)		10.42 (4.73)		24.58 (6.13)		18.02 (6.96)		22.38 (5.38)		23.66 (6.52)		19.28 (6.46)	
Smoke	No	16.71 (5.68)	-.608	8.77 (5.88)	-1.857	25.83 (6.38)	.123	14.65 (6.71)	-1.944	23.56 (5.34)	1.704	23.92 (5.64)	-.472	16.92 (7.03)	.229
	Yes	17.06 (5.88)		9.61 (4.69)		25.75 (6.18)		15.97 (6.95)		22.61 (5.92)		24.19 (5.72)		18.10 (6.50)	
Total		9.09 (4.51)		16.84 (5.75)		25.80 (6.30)		15.15 (6.82)		23.20 (5.58)		24.02 (5.66)		17.36 (6.85)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참고). 비흡연 대학생의 경우 Ego gram 유형 중 CP 성향이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CP 성향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1에서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 ( $\beta=.471, p<.001$ )을 미쳤으며, 조절변수인 CP 성향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CP 성향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2에서는 상호작용항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beta=-.014, p<.05$ ), 조절변수인 CP는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Ego gram의 자아 상태 중 CP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순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흡연 집단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및 자아 상태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참고). 흡연 대학생의 경우 Ego gram 유형 중 A 성향과 AC 성향이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A 성향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1에서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 $\beta=.470, p<.001$ )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수인 A 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A 성향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2에서는 상호작용항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beta=-.021, p<.05$ ), 조절변수인 A 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Ego gram의 자아 상태 중 A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순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C 성향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1에서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 $\beta=.436, p<.001$ )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수인 AC 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AC 성향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2에서는 상호작용항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beta=.015, p<.05$ ), 조절변수인 AC 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Ego gram의 자아 상태 중 AC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는 순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Non-smoking group: Moderating effect of ego gram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Variables	CP	NP	A	FC	AC
	<i>B</i>	<i>B</i>	<i>B</i>	<i>B</i>	<i>B</i>
Sex	-.321	-.258	-.272	-.283	-.265
Age	.021	.060	.043	.048	.053

Edu	.300	.261	.296	.291	.270
Stress (A)	.471***	.467***	.476***	.459***	.452***
ego (B)	-.062	.040	.010	-.048	.037
A X B	-.014*	.010	-.004	-.013	.004
R2	.388	.380	.373	.383	.375
Adj. R2	.373	.366	.358	.369	.361
F	4.557*	2.718	.301	3.427	.461

Table 4. Smoking group: Moderating effect of ego gram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Variables	CP	NP	A	FC	AC
	<i>B</i>	<i>B</i>	<i>B</i>	<i>B</i>	<i>B</i>
Sex	-.645	-.429	-.801	-.486	-.507
Age	-.416*	-.422*	-.351	-.420*	-.410*
Edu	.685*	.631	.682*	.783*	.718*
Stress (A)	.454***	.419***	.470***	.446***	.436***
ego (B)	-.062	.106	-.019	.062	.026
A X B	-.007	.004	-.021*	-.004	.015*
Adj. R2	.332	.347	.347	.327	.344
F	.746	.245	5.535*	.135	4.742*

####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의 과도기에 위치하며, 최근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안에서 학업 및 스펙 관리 등의 압박에 노출된 대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와 우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자아 상태 (Ego gram)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스트레스와 우울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Ego gram의 자아 유형은 부분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해석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나이,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점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 점수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았으며, 우울 점수는 5학년 집단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37].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집단주의 사회에서 특정 상황에 대해 사회는 남성에게는 스스로 조절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등의 능동적인 태도를 장려해온 반면에, 여성의 경우 수동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을 취해왔다 [31-32]. 한편, 우울 점수의 경우 5학년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5학년 집단의 특성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5학년 집단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취업 및 스펙 마련을 위해 졸업을 유예한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는 집단으로 정의했다. 이들은 다른 학년의 연구 대상보다 고연령이며, 취업 및 스펙에 대한 압박과 부모님 및 친지로부터의 기대 등을 받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학년 집단보다 우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고려된다.

자아 상태 (Ego gram)의 경우 CP 성향은 저연령 및 저학년 집단 (1학년)에서 지배적인 경향을 보인 반면, NP 성향의 경우 고연령, 5학년 집단에 다른 집단에 비해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연령군 및 학년별로 지배적인 성향이 극명히 나뉘는 이유는 CP와 NP 성향이 각각 담고 있는 의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CP 성향은 책임감, 지도력, 억압적, 권위적 등의 성격 특성을 보이며, 창조성보다 스스로 억제하고 엄격한 양심, 책임 등의 성향을 보인다. 저연령군 및 저학년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의 통제되고 억압된 환경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사회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써 공부할 것을 강요받고, 자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미국 고등학생과 비교하면 진로 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이 낮았으며[26], 독일의 청소년에 비해 자기를 통제하는 경향이 높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27]. 이와 유사하게, 조은현 외 [28]는 직장을 다니며 야간 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상대로 Ego gram의 성향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들 집단의 Ego gram 성향 중 CP가 가장 지배적인 성향으로 나타났다. 야간 대학생의 경우 직장에서의 상급자의 지시를 받으며 책임감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 CP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고연령군 및 고학년 (5학년) 학생에서 NP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NP 성향이 타인에 관대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은 대학 내에서 연장자 또는 선배의 역할로 인한 특정 성향인 NP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연령군 및 고학년 집단은 AC 성향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지배적인 특성을 보였다. AC 성향은 주변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로운 감정을 억누르는 착한 아이 성향으로, 이 성향이 강할 경우 주체성이 결여되고 욕구불만 및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고연령군 및 고학년 대학생의 경우, 정규 대학생 과정인 4학년을 모두 마쳤지만,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을 위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 집단으로 이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채 학업을 이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제하는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사료된다. 취업과 관련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무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취업 스트레스는 무력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개인이 특정 환경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극 및 스트레스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 하며 [29],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자신감이 결여되 실제로는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순응하거나 포기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30].

다음으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각 자아 상태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스트레스와 우울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38].

각 자아 상태의 조절효과를 보면, 비흡연 대학생 집단에서 CP 성향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 점수가 높아지는 관계에서 CP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 점수를 낮추는 것이다. CP 성향은 자신과 타인에게 엄격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성격을 지녔고 보수적이지만 사회질서의 유지 능력이나 이상 추구 등 긍정적인 면을 지녔다. 즉, CP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 또한, CP 성향과 정신적 고통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32], CP 성향은 자기비판을 의미하는 억제 요인과 타인 비판을 의미하는 자기주장 요인 모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P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비판을 통해 스스로 고통을 유발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비난의 대상을 외부화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반면, 흡연 집단에서는 A 성향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교류 분석학회에 따르면, A 성향은 체계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성향으로 현실을 객관 시하고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냉정

하게 의사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A 성향이 주도적인 사람의 경우 P 성향이 보이는 편견과 C 성향의 감정적 특징이 통제되어 통합적으로 볼 때, 적응성이 풍부하고 창조력이 높으며 자율성이 풍부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Ego gram의 A성향은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해 대응하는데 능숙한 A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한편, 흡연 집단을 대상으로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AC 성향의 조절 효과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오히려 우울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로,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AC 성향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적절하게 협력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AC 성향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병원 입원 및 질병 호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흡연 집단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AC 성향은 양의 조절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구 집단의 특성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흡연은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높이고 불안 및 우울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불안과 우울증상을 나타내었고[35], 우울증에 대한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36]. 또한, AC가 높은 경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고 현실에 순응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런 학습된 무력감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서 Ego gram이라는 개인의 자아상태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편, 불건강 행동의 한 종류로서 흡연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두 집단에서 조절변수 역할을 하는 서로 다른 Ego gram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의 접근에 있어 개인이 지닌 자아 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흡연 등과 같은 불건강 행동에 따른 대처방법을 새롭게 고민해야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연구의 표본은 1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흡연 외에 음주, 폭식 등과 같은 대학생의 미성숙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개인이 지닌 성격 특성인 ego gram의 조절효과를 흡연군과 비흡연군으로 구분하여 확인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ego gram의 조절 효과는 흡연군과 비흡연군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개인의 성격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Fergusson, D. M., Woodward, L. J. & Horwood, L. J. J. P. m. (2000). Risk factors and lif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u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30(1), 23-39. DOI: 10.1017/S003329179900135X
- [2] E. H. Lee. (2004).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1), 25-52. DOI: 10.15842/kjcp.2018.37.4.001
- [3] H. J. Kim. (2001). Effect of College Student's Ego-Identity on Vocational Attitude Maturity and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Social Science*, 5(1), 369-393.
- [4] H. J. Jung. (2008). Relationships of Family-of-origin Functioning with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6), 1135-1149. DOI: 10.5934/KJHE.2008.17.6.1135
- [5] Y. H. Kim, M. S. Yang & H. R. Park. (2015). A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1), 291-301. DOI: 10.14400/JDC.2015.13.11.291
- [6] Y. K. Min. (2005). Evaluation on suicidal risk factors and suicidal though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31, 31-52.
- [7] T. M. Song, D. L. Jin, J. Y. Song, J. Y. An & Y. H. Cho.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Suicide Characteristics by Age Group in Korea,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38(1), 122-142.

- [8] S. S. Ha & S. M. Kwon. (2016). Efficacy of the strengths-based writing intervention among the clinical adolescents with externalizing maladjustm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139-163.
- [9] Y. H. Yu, S. H. Lee & Y. R. Cho.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compassion,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s. *Cognitive Behavior Therapy, 10(2)*, 43-59.
- [10] J. Y. Park & J. K. Kim. (2014).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 suicide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way of family and friends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 167-189.
- [11] E. H. Lee. (2004).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1)*, 25-48.
- [12] S. H. Kang & D. S. Ra. (2013).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senior student'universit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4)*, 49-71.
- [13] S. M. Yang & K. Park. (2015).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Compa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8)*, 105-130.
- [14] Preston, D. B., Green, G. W. & Irwin, P. A. (1990). An assessment of college health nursing practice: A wellness perspective.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7(2)*, 97-104.  
DOI: 10.1207/s15327655jchn0702\_6
- [15] M. S. Kim. (2009). *Smoking escalation environment, stress coping strategies & smoking motivation related to smoking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16] S. O. Chang, J. A. Song & S. J. Lee. (2008). Types of smoking in adult smokers and influential variables related to smoking.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 77-90.
- [17] S. H. Park, J. H. Kang, J. S. Chun & H. J. Oh. (2010). A longitudinal comparative study of mental health between adolescent smokers and adolescent nonsmoker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2)*, 75-94.
- [18] J. H. Woo. (1992). *Ego-gram 243 Pattern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Personality*. Seoul: Jeongam Seowon.
- [19] Dusay, J. M. (1977). *Egograms: How I see you and you see me*. Bantam.
- [20] Berne, E. (1964). Trading Stamps. *Transactional Analysis Bulletin, 3(10)*, 27.
- [21] Eaton, W. & Kessler, L. G. (1981). Rates of symptoms of depression in a national sampl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4(4)*, 528-538.  
DOI: 10.1093/oxfordjournals.aje.a113218
- [22]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5-396*.  
DOI: 10.2307/2136404
- [23] Bong, W. Y. & Jeong, G. C. (2016).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ress on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spiritual experie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566-579.  
DOI: 10.5392/JKCA.2016.16.02.566
- [24]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25] Sharma, S., Durand, R. M. & Gur-Arie, O. (1981).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291-300.  
DOI: 10.1177/002224378101800303
- [26] S. M. Kim & I. S. Shim. (2006). A Comparative Study on Self-Authorship for Career Decision and Its Influential Factors in Korean and American High-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16*, 1-19.
- [27] H. O. Kim & J. S. Lee. (2006). Emotional autonomy in Korean and Germ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9*, 21-40.
- [28] E. H. Jo & D. H. Lee (2016). Comparison of Ego-States, Stressors, and Stress Coping Type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Day and Night Tim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39(4)*, 117-124.
- [29] Seligman, M. E. (1972). Learned helplessness. *Annual review of medicine, 23(1)*, 407-412.
- [30] C. S. Yu, I. J. Park & Y. W. Sohn. (2016). The Relationships of Learned Helplessness, Depress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Engagement: Focusing on Depression as a Mediator and Calling as a Moderator.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2(3)*, 431-453.
- [31] Y. G. Kang & J. H. Kim. (2010). A relationship of Ego gram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an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verifying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Counseling, 10(1)*, 627-650.
- [32] Emerson, J., Bertoch, M. R. & Checketts, K. T. (1994). Transactional analysis ego state function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client chang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1(1)*, 109.  
DOI: 10.1037/0033-3204.31.1.109
- [33] S. Lee. (2006). The impacts of a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ego state, and interpersonal attitude on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3)*, 457-467.  
DOI: 10.4040/jkan.2006.36.3.457
- [34] Yanagihara, K. et al. (2016). Child ego state is

associated with high prevalence of repeated hospitalizations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ESC heart failure*, 3(1), 18-25.

DOI: 10.1002/ehf2.12060

- [35] Dudas, R. B., Hans, K. & Barabas, K. (2005). Anxiety, depression and smoking in schoolchildren—implications for smoking prevention. *Th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125(2), 87-92.  
DOI: 10.1177/146642400512500213
- [36] Breslau, N., Peterson, E. L., Schultz, L. R., Chilcoat, H. D. & Andreski, P. (1998). Major depression and stages of smok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2), 161-166.  
DOI: 10.1001/archpsyc.55.2.161
- [37] J. M. Jung & J. K. Tak. (2005). Differences in Relations Between Job Stressors and Job Stress: Comparisons Between Male and Female Manage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3), 243-258.
- [38] Y. R. Park & E. H. Jang. (2013). Impact of Stress on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5), 549-558.  
DOI: 10.7475/kjan.2013.25.5.549

김 한 결(Han-Kyoul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경영학사)
- 2014년 6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행정학 전공 (보건학 석사)
- 2014년 9월 ~ 2019년 8월 :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보건학 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BK21Plus 연구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보건, 데이터마이닝, 정신건강, 간병서비스
- E-Mail : collkhk@korea.ac.kr

변 지 은(Jieun Byeon)

[정회원]



- 2013년 3월 ~ 2017년 2월 :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보건학사 (졸업)
- 2017년 3월 ~ 2019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보건학 석사과정 (졸업)
- 2019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보건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공공의료, 사회적 배제
- E-Mail : jieunie25@gmail.com

김 규 민(Kyu-Min Kim)

[학부원]



- 2016년 2월 :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 2019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석박통합과정
- 관심분야 : 보건의료시스템, 노인보건, 건강증진, 정신건강 등

- E-Mail : perves@korea.ac.kr

이 현 실(Hyunsill Rhee)

[정회원]



- 1990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5년 2월 :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보건정보관리, 의료질관리, 개인건강기록관리

- E-Mail : pridehyun@korea.ac.kr